韓国紙　韓国日報　１９９６年１１月９日

アジア高速道を本格的に推進

韓日海底トンネル～北京～南北ヨーロッパまで連結

汎アジア横断鉄道の構築事業に続き、アジア各国の道路を連結しヨーロッパまで結ぶアジア高速道路の建設事業が推進されている。

８日、建設交通部によると、国連のアジア太平洋経済社会委員会(ASCAP)は、ヨーロッパ各国を高速道路で結ぶユーロ・ロードのようにアジア各国を結ぶアジア高速道路の建設事業を本格的に推進するとのこと。

ESCAP は８０年代初盤にアジア高速道路構築事業を計画し、各国に意志を打診したが中国などの反対でそれを成就できなかった。

しかしながら最近、中国が自国を経てヨーロッパにゆく新たな路線を提示し、これが受け入れられるならばアジア高速道路網の構築事業に参画するとの意志を示し、アジア高速道路の建設事業が具体的になっている。

政府はこれについて、アジア高速道路の路線選定が韓国に有利に選定されるよう建設交通部の関係者を今月末にESCAP に派遣することにした。

ESCAP がこれまで計画してきたアジア高速道路の予想路線図は、韓日海底トンネルを掘り日本と韓国を結んだ後、韓半島を経て中国の瀋陽と北京に至り、北京から南北に分かれてヨーロッパまで繋ぐというものである。

한국일보 | 1996년 11월9일 토요일

아시아 고속道 본격추진

韓日해저터널-北京-南北유럽까지 연결

亞太경제사회이사회

범아시아 횡단철도 구축사업에 이어 아시아각국의 도로를 연결, 유럽까지 잇는 아시아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유럽 각국을 고속도로로 잇는 유러로드(EURO-ROAD)처럼 아시아각국을 잇는 아시아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ESCAP은 80년대초반 아시아고속도로 구축사업을 구상, 각국에 의사타진을 했으나 중국등 일부국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자국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노선을 들고 나와 이를 수용할 경우 아시아고속도로망 구축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시아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아시아고속도로 노선선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건교부관계관을 이달말 ESCAP에 파견키로 했다.

ESCAP이 지금까지 구상해온 아시아고속도로 예상노선도는 韓日 해저터널을 뚫어 일본과 한국을 연결한뒤 한반도를 지나 중국 瀋陽(선양)과 北京(베이징)을 거치며 北京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유럽까지 이어지도록 돼있다.

【金東永기자】